

내 손안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 시장정보앱 써보셨나요?

- 시세, 매매, 관리비까지 맞춤형 부동산 One-Stop 서비스 제공 -

작성자 : 한국감정원 정보화기획부 노종일(053-663-8472)

1. 추진배경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1,130조를 돌파하여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로 세계 최고 수준이나 실제 부동산시장정보는 데이터가 산재해 있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등 정보의 신뢰성마저 떨어져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적기에 안심하고 거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작년에 한창 이슈화 되었던 '난방투사 김부선씨' 사례 역시 아파트 관리비를 세대별로 배분할 때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특정 세대만 불이익을 받는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80%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개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국의 공동주택 등 주택정보를 전산DB로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게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추진내용

워킹그룹 구성,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 ⇒ 정보검색시간, 접근편의성이 가장 중요

먼저 CEO가 직접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부동산전문가, IT전문가, 대외 서비스 전문가, 청년이사 등 전문가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였다. 먼저 ①국민의 눈높이에서, ②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③해결방안이 무엇인지? ④투입비용대비 성과가 높은지?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1)정보는 많으나 여러군데 흩어져 있어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점, (2)컴퓨터가 있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여 이동중에 확인이 불가능한 점, (3)아파트관리비를 검색하여도 유사단지와 비교가 곤란한 점 등으로 파악되었다.

협업을 통해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 !!! ⇒ 가격정보, 거래정보 등 약 8억건 공개

부동산시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는 시세 등 부동산가격정보, 매월별 가격 변동추이, 방매된 부동산매물, 실제 발생하는 관리비 등으로서 현재는 8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부동산 매물정보는 부동산정보사이트 등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으나 방매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거래가, 공시가격 등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전국의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여 구축하고 있다. 부동산 매물, 분양정보는 공인중개업소, 네이버 등에서 가지고 있고, 분양정보(분양업체, 주택유형, 입주예정일, 세대수, 분양가격 등)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협회 등이 보유하고 있어 각 기관이 보유한 DB를 협업을 통해 가격정보, 시장정보, 매물정보 등을 구축하였다.

내손안의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시장정보앱 출시 !!! ⇒ 일일 약 2만건 조회

일반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하면 부동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해결책은 바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이었다. 가격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킹그룹과 사내 전산팀이 2달간 밤을 새며 토론과 연구를 통해 ‘부동산시장정보앱’을 개발하였다. 약 8억건의 정보가 내손안의 모바일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8만건이 다운로드 되었으며, 일일 약 2만건이 조회되기에 이르렀다.

맞춤형 서비스 발굴 !!! ⇒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우리아파트 관리비 공개

2015년 2월에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출시한 후, 내부 직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다. 별점이 낮거나 부정적인 댓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매물 찾기와 불투명한 아파트관리비 공개였다. 이를 통해 최초 출시 단계에서는 없었던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과 ‘우리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편의와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콜센터 바로연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앱을 개선하고 최신 디자인 경향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앱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서비스 활용수기, 개선할 점 등을 수집하고, 2차례에 걸쳐 대학생 인턴들의 아이디어 발굴대회를 통해 참신한 개선의견을 발굴하였다.

한국감정원 시장정보앱을 모르신다구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병행하였다. 부동산시장정보앱에 대한 SNS(페이스북, 블로그) 홍보, 2015 부동산투자박람회(한국경제 TV 주관), 공공기관 정부3.0 현장토론회(행정자치부 주관) 부스 운영, 고속도로 입간판 광고, KTX내 방송광고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각종 신문(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등), 방송(SBS생활경제) 등에서 정부3.0의 취지에 맞는 부동산시장정보앱에 대한 호평이 있었으며, 조선일보 주관 2015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3. 종합적 성과

부동산가격정보 통합공개 !!! ⇒ 매년 사회적 비용 약 234억 절감효과 발생 !!!

일반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총 8개의 사이트를 각각 검색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모바일 앱 하나를 통해 시세, 거래가격, 공시가격, 시장동향, 매물, 분양, 관리비, 대출정보 등의 확인이 가능하여 매년 약 234억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자 10만명 기준, 1개월당 사이트별 20분 사용, 근로자 시간당 임금 16,701원(‘14.6)의 1/2기준)

아파트관리비 공개 !!! ⇒ ‘아파트 난방비문제 등’ 사회적 문제 해결 !!!

아파트관리비 공개를 위해 먼저 관리비 부과기준인 건물면적에 대한 기준을 국토부의

집합건축물대장과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면적정보를 기초로 표준화하여 전국 아파트 면적을 비교가능하게 통일시켰다(전국 14,479단지, 약 8.4백만호). 아파트단지별로 사용하던 약 3천개의 계정과목을 47개 항목으로 표준화하여 항목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어 더이상 관리비 불투명에 따른 사회적 불신이 제거되어 민원과 분쟁이 대폭 축소되었다. 안양시 부림로 우성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 공개에 따라 비용절감액을 활용하여 한달 관리비 부과를 면제한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다

실수요자와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결 !!!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 !!!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으면 그 매물 또는 전세가 나갔다는 얘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시정정보앱에 우수 협력공인중개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정보를 제공하여 실수요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 결과 매매계약 등이 체결되는 ‘앱’의 순기능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와 실수요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4. 성공요인 분석

(경영진의 관심) 부동산 시장정보앱의 아이디어를 기획부터 피드백까지 CEO가 모든 절차에 참여하여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 매우 큰 성공요인이었다. CEO가 “아이디어는 번득이는 머리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무실 뿐만 아니라 차안에서도, 집에서 자다가도 일어나 고민하면서 나오므로, 대충대충에서 벗어나 온 힘을 다해 고민하자”며 직접 솔루션범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였고, 매년 개선회의에 참석하여 부동산 시장정보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개발부터 출시까지 겨우 2달 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개발 후에도 아이디어가 발굴되는 즉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한국감정원이 보유한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보유데이터 이외에 우수공인중개업소와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매물정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부동산 정보를 통합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에게 one-stop으로 양질의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시장정보 앱을 출시한 2월부터 3차례의 내부 의견수렴, 콜센터 개설, 공모전 및 인턴사원들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수집 등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생물처럼 유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신문, 방송뿐만 아니라 대학생 인턴을 통한 공모전, 현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정부3.0과 부동산시장정보앱 홍보를 한 결과, 일일 2만건 조회라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5. 향후 발전계획

직방, 다방 등 민간앱과 협업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 !!!

모바일 앱을 태블릿 버전으로 확대하고, 또한 직방, 다방 등 민간앱과 협업을 통해 월세시장과 매매시장을 연계하여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며, 전월세 통계 추가 제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통계를 확대 개발하여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환경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별첨1

부동산 시장 정보앱 소개서

- 1 한국감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합니다.
- 2 부동산 분양에서 거래 및 대출까지 부동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하나의 앱(App)으로 서비스됩니다.
- 3 나에게 맞는 매물정보, 나에게 맞는 분양정보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통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4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통신사 및 네이버 앱스토어 등록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정보 앱 서비스 주요 기능

부동산 가격

- 아파트/오피스텔 매매/전세시세
- 실거래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개별 공시지가
-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시장 동향

- 주택가격동향
- 월세가격동향
-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 부동산 거래현황
- 자가변동률
-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거래 정보

-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
-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 무리아파트 관리비
- 부동산 거래절차
- 관련대출상품
- 부동산 계산기

2015년 2월 출시
1개월만에
누적 다운로드 건수는
1만 건을 돌파했고,
일일 평균 열람 건수가
2만 건이 넘습니다.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감정원
Korea Appraisal Board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벨리로 291(신서동)
Tel_1644-2828 www.kab.co.kr

모든 부동산 거래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에서
"한국감정원" 입력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감정원
Korea Appraisal Board

부동산 가격 정보



아파트 오피스텔 매매/전세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 전국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전용면적 별 매매 및 전세 시세 제공 · 오피스텔 매매/전세 시세 : 서울·경기·인천 및 5대지방 광역시의 1,077개 단지(동) 3,420개 타입, 229,000여 시세 제공
실거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부동산 실거래정보 제공,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검색 가능 · 전국 기준 매매정보 680만건, 전월세정보 424만건 등 약 1100만건의 거래정보 구축 · 단지별 계약기간, 거래금액, 총정보 제공
공동주택 공시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 호별 열람 및 지도 서비스 · 전국 기준 약 1억건(년도별로 1천만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보 제공
단독주택 공시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공시가격 열람 및 지도 서비스 · 전국 기준 약 4천만건(년도별로 4백만건)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보 제공
표준/개별 공시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공시지가(표준지 및 개별지) 필지 별열람 및 지도 서비스 · 전국 기준 약 1억건(년도별로 1천만건) 표준/개별 공시지가 정보 제공
오피스텔 기준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8개시도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제공 · 전국 기준 약 1.1만동, 130만호의 기준시가 정보 제공

시장 동향 정보



주택/월세 가격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약 2만건의 표본자료를 통해 조사된 주택가격동향 /월세가격동향 정보를 월별, 유형별로 제공
지가변동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지가지수, 변동률을 시도별, 월별로 제공 · 전국 기준 약 7만필지 정보 제공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개 시도단위의 실거래 지수 제공
부동산 거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시도별 부동산 거래현황 제공 · 주택매매거래, 아파트매매거래, 전월세 거래 정보 등을 월별로 제공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상업용 부동산(일반 2만8천호, 집합 2만3천호)의 투자수익률, 소득수익률, 공실률 등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

거래 정보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인천·전국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우리아파트 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 전월세
부동산 거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관련대출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대출 상품
부동산 세금계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 취득세

“국민 부동산 나침반” 한국감정원



부동산가

한국경제

2015년 02월 06일 금요일
A29면 부동산

매물·시세 정보 발품 안 팔고 손가락만 ‘까딱’

감정원, 부동산 앱 맞춤형 서비스



직장인 A씨는 최근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 집 마련 정보를 얻고 있다. 이 앱의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 코너에서 매매와 전세 중 매매를 선택한 뒤 금액 수준과 동 단위까지의 지역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대의 매물이 나타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보고 해당 지역 중개업소를 찾아 거래하면 된다. A씨는 “앱에서 검색한 아파트 3곳을 이번 주말 다녀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휴대폰으로 부동산 가격과 시장 정보, 맞춤형 매물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앱’(사진)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은 아파트 매매·전세가, 실거래가, 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개별 공시지가,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등을 포함한다. 주택가격 동향과 부동산 거래 현황 등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아파트 매물 찾기, 관련 대출 상품과 부

동산 세금 계산, 부동산 거래 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민간 업체의 부동산 앱에 없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감정원의 독자적인 시세 정보를 망라했다.

감정원은 앞서 지난해 7월 조사요원들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입력하면 바로 본사 서버로 데이터가 전달되는 ‘모바일 현장조사 앱’을 만들어 배포했다. 수작업의 오류를 줄이고 공시지가 자가변동률 등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감정원은 지난해 초 서종대 원장 부임 이후 공동주택 관리정보(K-apt) 및 부동산거래관리정보(RTMS) 홈페이지 개편, 정보보안 강화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서 원장은 “부동산 조사·통계 업무를 통해 축적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와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true@hankyung.com

부동산 지표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공공서비스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이 서비스하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는 국민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앱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을 알아볼 수 있고, 주택가격 동향, 부동산 거래 현황 등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매물은 물론 분양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어 일평균 열람 횟수가 2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 아파트 분양 정보, 대출 상품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우리 아파트 관리비’ 메뉴는 아파트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고, 인근 유사단지와의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관심이 높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세, 동향, 거래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앞으로 정보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 부동산 나침반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조선일보 박금지 기자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앱 디자인 공모전’ 실시

기사입력 2015-04-06 17:39 최종수정 2015-04-06 17:46



▶ 한국감정원 로고.

[경제투데이 김충범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월 출시한 부동산 가격정보 무료앱을 널리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정보 앱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정보 앱은 감정원이 보유한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시장동향 등 가격정보와 나에게 맞는 매물찾기, 부동산 세금계산, 거래절차 등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앱으로 모바일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부동산 가격정보 앱의 메인화면과 상세화면 디자인을 공모하는 것으로 전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를 통해 하면 된다.

응모작 중에서 대상(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상(2명)에게는 각 50만원, 장려상(3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감정원 입사전형에서 서류전형 면제의 특권이 주어지며,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서류전형 가점을 부여한다고 감정원 측은 설명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잠재적 부동산 정보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공기업과 대학 간의 협업을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이 개발해 무료로 공급한 부동산 가격정보 앱. 앱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정보, 실거래 가격정보, 주택가격동향 및 부동산거래 현황 등 부동산관련 국가승인통계 6종, 분양 및 매물정보 등 국내 모든 부동산 가격 정보가 담겨 있다.

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앱 ‘깜놀?’

가격동향은 물론 관리비 정보까지
한국감정원 ‘정부 3.0’ 실천 박차
이용자 특성 맞는 서비스 제공

○○동 한신2차 청소비 1㎡당 102원 유사단지 대비 양호. 급탕비 1㎡당 189원 유사단지대비 양호...

지난 16일 ‘정부3.0 현장토론회’가 열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4층 대강당 한국감정원 전용부스. 서중대 한국감정원 원장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장관님 맥이 어디시죠”라고 물으며, 부스에 마련된 스마트폰으로 정 장관의 주소를 입력했다. 스마트폰에 정 장관 아파트의 관리비 상태가 뜨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진다. 서 원장은 “현재 관련된 관리비 항목별 실제 사용금액을 공개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항목들을 더 발굴해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앱을 내놓겠다”고 했다.

서 원장이 이날 시연한 앱은 한국감정원이 자체 개발해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정보 앱’이다. 이 앱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넓히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 3.0’ 정책에 맞춰 개발됐다.

서 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중인 정부3.0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목말라하는 부문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소비자 맞춤형 ‘부동산 가격정보 앱’을 개발하는 등 감정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부3.0 정책 실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우선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개편,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던 감정원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과 개별지가,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세, 실거래가격 등의 부동산 정보를 홈페이지 전면 배치하는 1차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했다.

감정원은 또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서중대 한국감정원장

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운영하며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관리비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27종에 국한되던 공개항목을 47종으로 늘였으며, 전자 입찰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해 리 단지, 시·군·구, 시·도 및 전국 평균관리비, 단지 관리비총액으로 나눠 그래프와 표 등으로 비교할 수 있게 했다.

2월에는 ‘부동산 가격정보 앱 개발’을 완료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앱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정보, 실거래 가격정보, 주택가격동향 및 부동산거래 현황 등 부동산관련 국가승인통계 6종, 분양 및 매물정보 등 국내 모든 부동산 가격 정보가 담겼다. 특히 이 앱에도 아파트관리비 정보가 담겼으며 아파트 매물찾기, 아파트 분양정보, 대출 상품 등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세형 감정원 기획조정실 부장은 “이 앱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해 일평균 열람 횟수가 2만건을 달성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특히 이달 6일부터 2차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주택의 매매·전세·월세 동향과 지가변동률,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등 부동산 관련 통계들을 좀더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은 “9월1일 개편 홈페이지를 선별 예정”이라며 “지금보다 통계중심적이고 사용자 접근이 편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정원은 정부3.0의 실천과 함께 하반기에도 공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혁신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감정원은 영업이익 90억원 흑자전환, 지가공시제도 개선을 통한 120억원 예산 절감 등을 인정받아 올해 6월 기재부의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